

李能和와 그의 史學

—특히 『朝鮮基督教及外交史』를 中心으로—

金 壽 泰

- | | |
|-----------|------------|
| I. 머릿말 | IV. 內 容 |
| II. 著述動機 | V. 史學史的 意義 |
| III. 叙述態度 | VI. 맺음말 |

I. 머 릿 말

李能和는 흔히 그가 집중적으로 활동한 시기로 인하여 啓蒙時代史學者로 불리고 있다.¹⁾ 한일합방 이후 官職에서 물러난 李能和²⁾는 본격적으로 歷史에 관심을 가지고서 많은 著述을 남겼다. 그의 歷史에 대한 관심은 時代史, 社會史, 民俗史, 外交史 등 매우 다양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宗教史에 관한 저술이 많다는 것은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 1) 李基白씨는 啓蒙時代의 分類史에 대하여 언급하는 가운데 1906년에 玄奘의 『東國史略』이 나온 이후 1931년에 崔南善의 『朝鮮歷史』가 나오에 이르러 한 국사의 서술은 小成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두 저서로써 묶여지는 기간은 우리나라 史學史에서 하나의 독립된 시기로 보아서 좋을 듯하다고 하였다. 李能和, 安廓 등을 이 범주 속에 넣고 있다(『韓國史研究에서의 分類史問題』, 『民族文化研究』 5, 1971; 『韓國史學의 方向』, 1976, pp.81~82). 따라서 筆者는 이에 의거하여 李能和를 啓蒙時代史學者로 부르고자 한다.
- 2) 李能和(1868~1945)의 일생은 1910년 한일합방을 기점으로 하여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1910년 이전의 시기에 있어서 그는 주로 官職에서 활동하였다. 한때 農工商部 主事로 일을 했지만, 거의 대부분 外國語學校에서 敎官, 校長으로서 활동하였다. 한편 李能和의 國學에 대한 관심은 官職에 머물러 있던 시기에 國語研究 등을 통하여 드러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한일합방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있다.³⁾ 佛敎, 儒敎, 道敎, 基督教 등 韓國에서 신봉된 모든 宗教를 다루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李能和에 대한 學界의 研究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⁴⁾ 더우기 그의 史學史的 위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그의 저술들이 대부분 前近代的인 서술방법을 따라 쓰여진 자료집적인 성격의 冊이라거나,⁵⁾ 또한 그의 日帝下 活動과 관련하여 日帝에의 저항과 조국의 독립에 바탕을 둔 철저한 역사의식이 그에게 결여 내지는 불철저하였다는 것은⁶⁾ 李能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그의 史學史的 위치를 이해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듯하다.

3) 그의 著述이 宗教에 관한 것이 많아서 宗教史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고 있는 데(李基白, 앞의 논문, p. 82) 그의 연구가 단순히 宗教의 敎理에만 머물지 않고 社會와의 관련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思想史에 관한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4) 李能和에 대한 연구는 1962년 4월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所 主催로 19 周忌 追念講演會가 열린 이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우선 人物을 中心으로 간단히 서술한 연구로서는 金聲均, 「李能和一韓國의 얼을 찾아서」, (『韓國의 人間像』, 新丘文化社, 1965)와 安啓賢, 「李能和」, (『韓國近代人物百人選』, 東亞日報社, 1970; 『韓國佛敎史研究』, 1982)를 들 수 있다.

그리고 『朝鮮基督教及外交史』의 잘못된 書評 등 그의 史學史的 위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간략히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 洪以燮, 「李能和先生的 『朝鮮基督教及外交史』」(『圖書』 6, 1963; 『韓國史의 方法』, 1968)

, 「李能和先生的 『朝鮮基督教及外交史』 複印序」(新韓書林, 1968)

○ 金容燮, 「우리나라 近代歷史學의 成立」(『韓國現代史』 6, 1970; 『韓國의 歷史認識』 下, 1976)

○ 李基白, 「韓國史研究에서의 分類史問題」(『民族文化研究』 5, 1971; 『韓國史學의 方向』, 1976)

○ 李萬烈, 「民族主義史學의 成立」(1976; 『韓國近代歷史學의 理解』, 1981)

5) 대체로 이 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李能和에 대한 評價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이다(洪以燮, 「李能和先生的 『朝鮮基督教及外交史』」, pp. 444~445 및 金容燮, 「우리나라 近代歷史學의 成立」, p. 447, 그리고 李萬烈, 「民族主義史學의 成立」, p. 146 등). 한편 金容燮씨는 앞의 논문에서 사진서술적이고, 자료정리적인 것이며, 더우기 철저한 실증적인 연구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다.

6) 金容燮, 「우리나라 近代歷史學의 成立」, p. 447.

그러나 이와는 달리 李能和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측면을 찾고자 노력한 연구도 있다. 그의 저술이 단순히 자료의 배열은 아니라고 하며 종전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 그리고 당시 李能和의 많은 分類史 저술에 의미를 부여하여 나름대로의 일정한 학문적인 세계를 개척해 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도 있다.⁸⁾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李能和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서 파악하였다는 점에 있어서⁹⁾ 앞으로 李能和의 史學史的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기본적인 시각을 제공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장과 함께 『朝鮮基督教及外交史』를 중심으로 하여 李能和의 史學을 살펴보려고 한다.¹⁰⁾ 그의 방대한 宗教史 저술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朝鮮基督教及外交史』의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李能和의 여러 면모가 보다 집중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먼저 李能和가 宗教史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이 冊의 저술동기와 함께 알아볼 것이다. 이어 이 冊에 나타난 저술태도를 분석하여 그의 저술이 단순히 자료의 수집·배열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冊의 內容 및 이 冊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史學史的 意義를 검토해 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啓蒙時代史學에 대한 조그만 새로운 이해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7) 洪以燮, 「李能和先生の『朝鮮基督教及外交史』」, pp. 445~450.

8) 李基白씨는 李能和의 저술은 당시 代表的인 分類史 저술이라고 하며, 이들의 연구가 그 무렵 日本分類史專門家の 그것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韓國史研究에서의 分類史問題』, pp. 81~86).

9) 李基白씨는 앞의 논문, p. 84에서 李能和의 敘述이 東洋의 전통적인 방법에 추종하면서 史料의 수집, 정리에 치우친 것은 그 한계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10) 『朝鮮基督教及外交史』에 대하여는 洪以燮씨의 書評과 復印序를 들 수 있을 뿐이다. 이 밖에 基督教研究史에서 약간 언급되기도 한다.

II. 著述動機

李能和가 『朝鮮基督教及外交史』를 저술한 동기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이 冊의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洪熹의 叙를 통하여 우선 짐작해 볼 수 있다. 李能和는 서로 친분이 있던 洪熹에게 서문을 부탁하였는데,

及聞公之所自爲言 則曰吾佛者也 固無與於基督教 而基督教乃吾先君子之所從事者也 纂輯是書 以寓追慕之誠¹¹⁾

라고 하여 佛教信者인 그가 父인 李源兢(1849~1919)이 믿었던 基督教의 역사를 정리함으로써 그의 父를 추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冊을 썼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 冊은 그의 父인 李源兢과의 관련 속에서 쓰여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李源兢이 기독교 신자가 되어 활동하던 것을 이 冊의 거의 끝 부분으로 잡고, 동시에 거기에다가 이 冊의 유일한 사진 한 장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쉽게 살펴진다.

사실 李能和와 그의 父인 李源兢과의 관계는 매우 흥미롭다. 李源兢은 法部協辦 등 舊韓末 政府의 高位官職을 지냈고, 또 獨立協會의 활동을 하며 開化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던 人士였다. 그런데 그는 독립협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체포되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기독교신자가 되었던 것이다.¹²⁾ 그러나 李能和는 앞서 언급된 洪熹의 叙에 잘 나타나 있듯이 본래 佛教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¹³⁾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宗教상의 갈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李源兢은 죽을 때에 李能

11) 洪熹, 『朝鮮基督教史』, 叙.

12) 李能和, 『朝鮮基督教及外交史』, 下編, 第30章「地獄即天堂」 및 李光麟, 「舊韓末 獄中에서의 基督教信仰」(『教會와 歷史』92號, 1983, p.4).

13) 李能和와 佛教와의 관계는 安啓賢씨의 「李能和」에서 간략히 정리되고 있어 참고가 된다.

和에게 유언하기를 “너는 중놈이니까 敎會 일은 아예 돌보아주지 않는다” 고까지 원망을 하였던 것이다.¹⁴⁾ 이러한 까닭에 일반적으로 洪憲의 叙에 의거하여 李能和가 기독교신자였던 그의 父를 추모하는 마음에서 기독교사를 저술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李能和의 저술동기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닐까 한다. 그것은 그의 父를 추모한다는 사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어느 누구보다도 그가 歷史家로서 宗教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¹⁶⁾ 또한 韓國의 모든 宗教의 歷史를 정리해 보고자 했던 자신의 관심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李能和는

我朝鮮古今 宗教凡有五 一曰神教(附風流教及巫祝) 二曰佛教 三曰道教 四曰儒教 五曰基督教¹⁷⁾

라고 하여 韓國의 宗教를 대략 5 가지로 나누고, 거기에 대하여 시간적인 先後가 있지만 『朝鮮佛教通史』(1918)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各 宗教에 관한 역사를 모두 정리하였던 것이다.¹⁸⁾ 그러므로 『朝鮮基督教及外交史』를 쓴 저술동기도 李能和의 이러한 관심과 관련시켜서 이해해야 보다 분명히 파악될 것이다.

그러면 李能和가 모든 宗教史를 저술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이 冊의 저술동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李能和가 宗教史에 관하여 언급한 말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李能和는 『朝鮮佛教通史』의 序에서

14) 安啓賢, 앞의 논문, p. 141.

15) 洪以燮, 「李能和先生の『朝鮮基督教及外交史』」, p. 445.

16) 李能和가 宗教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자세히 살필 수 없다. 1904년 이후 父인 李源兢의 종교적 활동에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의 宗教에 대한 첫 저술로 생각되는 『百教會通』은 1912년에 나왔다. 이후 그의 宗教史에 대한 저술이 간행되었다.

17) 李能和, 『朝鮮基督教及外交史』, 「緒言」(以下 緒言으로 略함).

18) 「朝鮮神教源流考」, 『朝鮮道教史』, 「朝鮮儒教源流」 및 「朝鮮儒界之陽明學派」 등이 바로 그것이다.

名雖藉乎歷史之體 實兼寓於布教之用

라고 하여 宗教, 특히 信仰과 歷史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李能和의 宗教史의 저술이유는 宗教와 歷史研究의 양 측면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宗教의 측면에서 李能和는 모든 宗教 안에는 하나의 眞理와 함께 통하는 점이 있으며, 그것을 찾음으로써 각기 인정하기를 바랬던 것이 아닐까 한다. 洪熙의 叙에서

然余意公之志 正欲區以別於各教之自爲一統

라고 하였듯이 李能和는 各 宗教는 원래 하나로 통하면서, 드러나는 특징으로 구별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宗教에 대하여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던 李能和는 또한 서로 「會而通之」하기를 바랬던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李能和의 宗教史 저술에 있어서 기본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되는 『百教會通』의 序에서

昔於印度에 佛日이 一出호니 九十六道ㅣ如草上露호야 皆消化矣라 然今宇內에 屈指之敎ㅣ有十數種호며 且朝鮮人所創之者도 亦屬不少호야 不久에 將見人各一敎라 當此之時호야 誰爲內敎며 誰爲外道리오 道既不同이라 不相爲謀ㅣ니 祇可任他호야 各主其說이라 雖然如是나 元以一圓으로 分成百方이어늘 世間之人이 由因不知호야 自生分別호니 水乳는 難期호 矛盾은 是應호 爰將諸宗教之綱領호야 對照相並호야 同異發明호며 引而證之호야 會而通之호며 毫不變易호야 尊重聖訓호며 諺解句讀호야 以便閱覽호니 各敎理行이 瞭若指掌이라 儒者見之호면 謂之儒道호며 佛者見之호면 謂之佛道호며 他敎之人도 亦復如是호야 說心說性에 知彼知己호야 自爲決擇호며 並行不悖호 是所望焉이오 至若末章對辨諸文호야는 余는 佛者故로 對辨佛者호야 辨明而已호 非有他耳라

고 한 데에서 뚜렷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 즉 李能和는 오늘에 이르러 무엇이 內敎이며, 外道이나고 전제한 다음 各 宗教는 하나의 근본에서 나뉘어졌을 따름으로 서로가 모순이나 대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各 宗教는 「會而通之」할 수 있으며, 또한 각각 자기

가 믿는 바의 宗教를 잘 따르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李能和의 宗教的 입장을 이미 언급한 洪熹의 叙에 드러난 저술동기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때 李能和는 『朝鮮基督教及外交史』의 저술을 통해서 父를 추모하는 한편, 父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宗教上的 갈등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히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기독교신자였던 父와 불교신자인 그가 서로 宗教의으로도 모순이 되지 않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¹⁹⁾

그러나 李能和가 이러한 그의 의도를 歷史의 체재로써 담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宗教의 입장에서 언급한 사실을 보다 뚜렷이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各 宗教의 源流, 특히 宗教의 歷史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내어야 했으리라 생각된다. 洪熹의 叙에서

夫教之有史 古無是也 然余意公之志 正欲區以別於各教之自爲一統 而又其教之盛衰 有以觀於吾人者 直立以爲史也

라고 하였듯이, 李能和는 宗教의 盛衰를 역사로써 기록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歷史를 제대로 알아야 各 宗教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基督教史가 없었다는 사실과 기존의 基督教史에 대한 不滿이 또한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李能和는 이 冊의 저술에 있어서 달레(Dallet)의 『韓國天主教會史』 등을 참고하였는데,²⁰⁾ 그것은 天主教信仰을 전파하기 위한 護教論的인 冊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李能和는 단순히 信仰만이 아니고 韓國의 歷史와 결부된 基督教史를 새로이 써 볼 필요가 있었을 것

19) 그리하여 李能和는 기독교신자였던 그의 아버지의 忌日에 冥福을 빌기 위하여 佛經을 외우기까지 하였다(安啓賢, 「李能和」, p. 142).

20) 李能和는 中國 등의 基督教史 書籍을 참고하는 한편으로 달레(Dallet)의 『韓國天主教會史』(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1874)와 드브레(Devred)의 노력으로 1924년 홍콩에서 간행된 『韓國天主教—그 起源과 發展』(Le Catholicism en Corée, son origine et ses progrès)의 小冊子를 인용하고 있다.

으로 보인다.²¹⁾

한편 李能和는 韓國의 歷史 중에서도 특히 당시의 現實的인 관심과 관련하여 이 冊을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李能和는 그의 緒言에서

蓋李朝廟謨 既以崇正學闢異端 尊中華攘夷狄 爲其國是焉 由是而排折西教 拒絕外人 英美法俄諸國之請修好通商者 踵相接 而地方官吏 內受朝命 既不會面 亦不答書 始自先世 一味堅守事大主義鎖國政策 至于大院君而極矣 其結果乃使朝鮮民族 於世界則爲落伍者 於時代則爲遲後者 蓋咎有所歸 曰頑固儒 吾於此 寧欲誅虐殺之忍心 而弔流血者之靈魂焉

라고 하여 당시 朝鮮社會의 낙후된 원인을 西洋의 基督教과 결부시켜 밝혀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朝鮮社會가 지금 낙후되어 있는 것은 바로 西洋의 文物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李能和는 基督教史를 그대로 신앙과 관련한 宗教史의 한 부분으로 서술하여 편찬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近代韓國의 落後와 관련하여 그 원인을 밝혀보려고까지 하였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²²⁾

그래서 李能和는 자기의 이러한 생각을

余之所著書 以我朝鮮人讀者爲本位²³⁾

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朝鮮의 독자에게 똑똑히 알려려고 하였다. 이에 李能和는

是書之編成 本以純漢文 以其引用之才料 皆屬純漢文故也 旋因印書者之囑 乃於每句讀處 夾入正音(諺文)口訣 以便讀解文義 而引用之漢文本質 稍不變易事²⁴⁾

라고 하여 본래의 純漢文을 國漢文混用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

21) 그것은 『朝鮮基督教及外交史』와 달배의 『韓國天主教會史』의 目次를 비교해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2) 洪以燮씨도 「李能和先生의 『朝鮮基督教及外交史』」, p. 446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23) 李能和, 『朝鮮基督教及外交史』, 「言例」(以下 言例로 略함).

24) 同上

에서 李能和의 啓蒙의인 의도 또한 살필 수 있다. 그 결과 1925년에 완성된 『朝鮮基督教及外交史』는 3년 후인 1928년에 비로소 刊行될 수 있었다.²⁵⁾

이 상에서 李能和의 『朝鮮基督教及外交史』의 저술이 基督教에 대한 그의 宗教的 입장을 표명하고, 한편으로 韓國의 歷史에 대한 그의 現實的인 관심과 함께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보았다.

Ⅲ. 叙述態度

李能和는 어떠한 서술태도를 갖고서 『朝鮮基督教及外交史』를 썼을까. 과연 기존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듯이 그의 著述이 단순히 史料集에 불과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살펴보자.

李能和의 서술방법에서 우선 눈에 띄는 두드러진 현상은 그가 충실히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洪熹의 叙에 언급되고 있듯이,

記昔余辱與公視事西樞 對案而閱累星霜 每見公讀書 左右手以筆札隨之 噤不與人一言 盡日抄寫 灑灑作風雨聲 然竟不知其爲何語 而能忘勞如此耳 後見公於妙洞之居者 言視其壁西北隅 積如推陵者 皆金石之秘 稗乘之奇也

라고 하여 李能和가 하루종일 史料를 抄寫했다거나, 그 쌓인 자료가 推陵과 같다고 한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즉 그는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광범위하게 자료를 모으려고 했으며, 또한 그것을 그의 저술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著述에서는 官撰史料, 野史類, 金石文, 近世學者의 기록, 각종 外國의 기록, 또한 당시 그가 직접 들은 내용 등을 풍부하게 찾아볼 수 있다.²⁶⁾ 이러한 까닭에 흔히 李能和라고 하면 바로 史料

25) 李能和가 이 冊의 緒言을 1925년 聖誕節에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 완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래의 純漢文을 고치는 작업으로 인하여 3년 후인 1928년에 비로소 出版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의 『朝鮮基督教史』(1)(2)(3)이 『東明』 38, 39, 40(1923)에 실리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冊이 준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6) 李能和의 저술에는 오늘날 原史料를 찾을 수 없는 귀중한 것이 실리기도 하

의 수집에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李能和가 이 冊을 저술함에 있어서 필요되었거나 소모하였을 시간과 노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사실, 즉 그가 자료를 수집·정리하고자 한 노력 때문에 그의 저술은 단순히 자료의 수집 혹은 나열에 불과하다든지 하여 끝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하였다.²⁷⁾

그러나 李能和의 『朝鮮基督教及外交史』는 물론 풍부한 史料集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그의 저술을 일단 세밀히 읽게 되면 그가 冊을 저술함에 있어서 단순히 史料의 수집 및 배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李能和는 그가 널리 수집하고 모은 史料들을 단순하게 배열하는 서술에 그치지 않았고, 史料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李能和는

能和按高麗李齊賢益齋亂黨에 有神馬歌云^{註云馬西極 佛朗國所歌} 佛朗神馬來皇都다 云云云
니 皇都即松都 蓋當時에 已有佛朗國之名이나 而云在西極云 則是指稱歐洲之佛朗
國者歟아 抑或指亞刺非那邊產善馬之國名歟아 未可知也로다²⁸⁾

라고 하여 앞에서 언급된 史料에서 일단 의심나는 부분이 발견되면 “能和按”이라고 하며 자기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때 그는 史料 하나하나 사이에 내재하는 차이점을 분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史料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거나 신빙성여부를 판단하였다. 즉 李能和는

本書下編 崔濟愚氏利用議記 倡起東學 聲稱退治西洋之學 故仍記其鄭鑑錄迷信之由來 並證其偽造之事實 以顯現世之迷惑於風水議記等說者事²⁹⁾

였다(李基白, 「韓國史研究에서의 分類史問題」, p. 82). 그래서 그 무렵 일한 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자료들이 그의 冊을 통하여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李能和는 당시 찾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7) 그래서 實證의이지 못하다거나(金容燮, 「우리나라 近代歷史學의 成立」, p. 447) 東洋의 전통적인 방법에 추종하였다거나(李基白, 「韓國史研究에서의 分類史問題」, p. 84) 전근대적인 요소가 많다는(李萬烈, 「民族主義史學의 成立」, p. 146)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28) 李能和, 『朝鮮基督教及外交史』, 上編, 第1章, 第1節, 〈通事李碩이 初報佛郎機國〉(以下 著者와 冊名은 省略함).

29) 言例

라고 하여 事實의 偽造를 알아내거나,

權尙然之燒却神主는 是係事實이니 因權尙然之來言而知之호고 尹持忠之棄其親屍는 本屬虛言이니 因申史源之抵其兄書而知之호니³⁰⁾

라고 하여 다른 史料와의 비교와 함께 虛言임을 지적하고 있다. 만일 그래도 잘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未可知也” 혹은 “故未能明知也” 등이 라고 하여 결론을 보류하는 신중한 태도를 또한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李能和의 저술에는 사실의 단순한 나열에만 그치지 않고 사실에 대한 해석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李能和가 이와 같이 각 事實에 대하여 자기의 해석을 첨가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李能和가

余嘗聞佛國人等所說호니 以爲世人是 但知大院君이 虐殺西敎之徒호 而不知府大夫夫人閔氏之爲西敎信者也로다 余竊嘗疑之러니 後에 得讀達來氏所著朝鮮敎堂史호고 而始知事實호니³¹⁾

라고 하여 자기가 의심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다른 기록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비로소 사실을 알았다”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즉 그가 事實에 대하여 자기의 해석을 첨가한 것은 바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事實의 인식에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까닭에 李能和는 가능한 많은 史料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그 사료를 종합하여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그의 광범위한 史料 수집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李能和가 『朝鮮基督教及外交史』를 서술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한 것은 어떤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자기가 읽고 참고한 사실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주제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확실한 典據 즉 史料에 의하여 뒷받침하고자 했기 때문이

30) 上編, 第12章, 「尹權兩人處於死刑」

31) 下編, 第4章, 「朝鮮敎堂史內丙寅虐殺記事(第四次虐殺)」

다. 李能和가

余之所著書 以我朝鮮人讀者爲本位 而朝鮮人苦乏參考書籍 故余必引證文全部 以省讀者挾疑 而再搜括之勞事³²⁾

고 하였듯이 자기의 주장에 대한 讀者의 의심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李能和의 서술방법을 매우 實證的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사실 李能和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이러한 實證에 있었다. 이러한 점은 『朝鮮基督教及外交史』의 章·節의 구성에 있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章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서 李能和는 일단 章의 주제와 관련된 자기의 전체적인 의견을 먼저 수록하고 있다. 이어 그 내용의 끝에다가 “茲舉實證 列錄如左”, “茲舉實證 以藉參考”, “今舉實證 大略如左” 및 “欲證上叙 具引下文” 등 이라고 하여 일일이 그 근거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 실린 節의 내용은 바로 章의 주제에 대한 李能和의 의견을 實證하기 위하여 실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節의 구성에 있어서도 각 항목별로 나누고, 또한 보다 확실하고 중요한 史料부터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節의 내용이란 李能和의 주장에 대한 註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李能和는 단순히 史料의 수집과 그 나열에만 치중한 歷史家가 아니고, 오히려 상당히 비판적이고 실증적인 태도로써 史料를 다루었으며,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하였음을 살펴 보았다.³⁴⁾ 그러므로 『朝鮮基督教及外交史』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李能和

32) 言例

33) 金相億씨가 李能和에 대하여 『朝鮮女俗考』의 解說을 통하여 이 점을 간단히 지적한 바 있다(『韓國名著大全集』, 大洋書籍, 1973, pp.13~14).

34) 그러면 李能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1910年代 그의 初期著述인 『朝鮮佛教通史』가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實證의인 그의 노력을 찾아볼 수 있지만, 대체로 충실한 자료의 수집, 배열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1920年代에 들어오면서 그의 이러한 결점은 많이 시정되고 있다. 『朝鮮道教史』, 『朝鮮女俗考』(1927) 등 이 당시 그의 저술에서는 지금까지 필자가 언급한 것처럼 李能和 자신의 주장과 實證의인 측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자세히 살펴볼 수 없다. 그러나 崔南善

의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되고 파악되어야만 할 것이다.

Ⅳ. 內 容

李能和가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저술한 『朝鮮基督教及外交史』의 내용은 어떠한 것일까. 이 冊의 제목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朝鮮基督教及外交史』는 全體 上·下의 2編으로, 各 40章·31章으로 되어 있다. 李能和가 이 冊에서 밝힌 言例를 통하여 그 구성을 대강 알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첫째 부분은 上編의 1章에서 5章까지 해당되는데, 「西洋事情의 最初見聞」, 「最初輸入之西洋圖書」, 「朝鮮學者對西洋學術之思想」과 「朝鮮學者與天主教」 등의 章을 마련하여 다루고 있다. 주로 天主教의 수용과정에 관한 부분이다. 둘째 부분은 上編의 6章에서 下編의 13章까지 해당되며, 「仁·肅·英·正·列王時之西敎」, 「哲宗時天主教狀態」, 「西敎分布在地的狀況」 및 「正·純·憲·高宗代의 迫害事件」 등을 다루고 있다. 대체로 天主教의 전파과정과 迫害의 전말을 설명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세째 부분은 下編 14章부터 31章까지 해당되는데, 「朝鮮外交史」와 「立約後西敎狀態」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基督教³⁵⁾가 信仰의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 및 당시의 기독교 상황을 다룬 것이다.

그러면 첫째 부분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 부분은 『朝鮮基督教及外交史』의 序論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李能和는 여기에서 韓國에 天主教가 수용된 것은 매우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天主教는 주로 宣祖 이후 書籍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었다고 보고, 그 결과 學者들이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자발적으로 믿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宣祖, 光海君代는 韓國에 天

동과의 교류와 함께 近代의인 學問方法을 받아들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35) 이 때 基督教란 天主教와 改新敎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天主教가 落種한 시기라는 것이다. 한편 李能和는 이러한 韓國에서의 天主教 수용과정을 中國과 日本의 전래과정과 함께 비교하고 있다.

다음으로 『朝鮮基督教及外交史』의 중심을 이루는 둘째 부분은 李能和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다룬 부분이다.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분량을 통하여서도 그가 어디에다가 촛점을 둔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즉 이 冊의 本文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天主教 迫害의 전말을 주로 다루면서, 한편으로 그 속에서 天主教가 전파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天主敎의 전파과정을 언급한 李能和의 설명을 살펴보면,

朝鮮之天主教는 落種於宣光之時³⁶⁾야(宣祖·光海) 發芽於仁祖癸未³⁷⁾키 自是以來로 根盤蔓延³⁸⁾야 肅宗丙寅에 西學熾盛³⁹⁾하고 英宗戊寅에 海西關東에 家家人이 毀祠廢祀⁴⁰⁾하고 正宗乙巳에 刑曹按治西敎之人⁴¹⁾하고 戊申에 又有西敎問題⁴²⁾

라고 하여 宣祖·光海君代에 落種한 天主教가 仁祖代에 들어와서는 發芽하여 점차로 蔓延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肅宗 이후 西學이 熾盛함에 英祖代에 들어가서는 더욱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正·純·憲宗代에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지만 哲宗代에 들어오면,

正·純·憲三王時에 連有邪敎之獄⁴³⁾야 虐殺無數之人⁴⁴⁾하고 惟哲宗在位十四年間은 姑息無事. 而西敎之徒 潛自滋蔓⁴⁵⁾야³⁷⁾

라고 하여 오직 이 시기에 잠시 박해가 없어 더욱 몰래 天主教徒가 늘어났다고 한다. 한편 高宗代에 다시 박해를 당하면서도,

蓋其時之西敎는 尙屬初期라 故로 習其敎者는 但能得讀燕聘之書而已矣오 而後至高宗初年에 又將百年일서 西敎之徒 盤錯根節⁴⁶⁾야 多數洋士 潛入國來. 而以朝鮮文으로 爲傳敎用⁴⁷⁾키 其勢不得不翻印書籍然後에 彼此利便⁴⁸⁾하고 婦孺普及矣⁴⁹⁾

36) 上編, 第11章, 「正宗辛亥起西敎獄(第一次虐殺)」

37) 下編, 第2章, 「崔福述倡東學」

38) 下編, 第8章, 「誅其人而火其書」

고 하여 朝鮮文의 사용과 함께 婦孺에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李能和王은 이와 같은 時代的인 전파과정 이외에도 또한 天主教가 地域的으로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지를 살피고 있어 주목된다.

李能和王은 이러한 天主教의 전파과정과 관련하여 天主教 迫害의 원인과 과정을 매우 상세히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李能和王은 이러한 迫害의 전말을 설명함에 있어서 迫害가 일어난 원인을 가장 중요시하여 살피고 있음이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李能和王은 黨爭, 世道政治 등 당시의 政治現實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正祖·純祖·憲宗代의 박해를 다룸에 있어서 李能和王은 우선

正祖·純祖·憲宗三王之世에 俱起西教之獄事 而亦有黨爭之關係 在乎其中 故略記朋黨之起原 黨爭之醜態 黨禍之慘狀 以便讀者 尋繹頭緒 了解事情事³⁹⁾

라고 하여 黨爭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正祖·純祖·憲宗 3代의 天主教 迫害를 설명하기 이전에 「李朝朋黨與天主教之關係」와 「四色黨派及朝野狀態」의 章을 먼저 마련하였던 것이다.

사실 李能和王은 韓國의 歷史를 이해함에

故로 讀朝鮮史者는 若不識黨情하면 則不得容易看破史實也라⁴⁰⁾

고 하여 朝鮮의 歷史를 읽는 사람은 黨情을 모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故로 吾今黨編纂朝鮮基督教之歷史에 先欲敘述朝鮮朋黨史之由緒하니 自有脈絡之貫通야 以便條理之分析也로다⁴¹⁾

라고 하여 基督教史를 서술함에 먼저 朋黨史를 언급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특히 李能和王은

39) 言例

40) 上編, 第27章, 「獄案一括」

41) 上編, 第6章, 「朝鮮宗教之由來並關衛旨趣之所在」

朝鮮西敎熾蔓之時는 正在黨禍劇烈之餘라 細究其所以然⁴²⁾

라고 하여 天主教가 熾蔓하던 시기는 바로 黨禍가 극렬했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李能和는 이러한 그의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가면서 迫害가 표면적으로 邪敎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正・純・憲三王時에 天主教方熾盛하야 以是로 屢起獄事하야 爲犧牲者ㅣ甚多하니 外雖因邪敎나 內實爲黨軋矣라 今編敎史에 並叙黨情은 蓋欲發揮當時眞相故也라⁴³⁾

고 하여 밖으로는 邪敎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었지만, 안으로는 실제로 黨軋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李能和는 天主教의 박해가 儒敎와 天主教의 대립으로서 西洋의 宗教戰爭에 비교된다고 하더라도,

純祖辛酉西敎之獄은 雖屬神聖之戰이나 實爲朋黨之爭이라⁴⁴⁾

고 하여 여기에서도 실제로는 朋黨之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李能和는 儒敎와 天主教의 思想的 對立까지도 黨爭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正祖代 처음 일어난 天主教 迫害의 피해자를 언급하는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李能和는

尹持忠이 瘞神主廢祭祀로 物議大起하코 臺啓朋黨하니 然則毀祠祀는 一也어늘 而何以海西之人人은 付之不問之科하코 湖南之兩人은 處於斬首之刑고 此는 無他라 海西之人人은 非四色故也오 湖南之二人은 是兩班故也⁴⁵⁾

라고 하여 兩班만이 박해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正祖・純祖・憲宗代의 박해에 이어 高宗代의 박해에 대해서는

42) 上編, 第8章, 「四色黨派及朝野狀態」

43) 上編, 第11章, 「正宗辛亥起西敎獄(第一次虐殺)」

44) 上編, 第26章, 「獄情問題」

45) 上編, 第11章, 「正宗辛亥起西敎獄(第一次虐殺)」

前記 朝鮮近世之世道 我俗謂執政者曰世道也 以藉憑考朝家之政情 社會之物態 而其與排斥西教之事件 直接間接之關係 自可了知事⁴⁶⁾

라고 하여 世道政治와 관련을 지어 살피고 있다. 따라서 李能和는 여기에서도 먼저 世道政治에 대한 설명을 한 뒤에 高宗代의 박해를 다루었다. 이러한 서술의 전개방법은 正·純·憲宗代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李能和는 天主教의 수용과정이나 박해의 전말을 설명함에 있어서 특히 南人과 관련시켜서 다루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는

至於西洋書籍之入來에 其最先講究而信奉者도 亦在南人一派이니 可謂一奇現象也
 라 余於是乎에 欲述西教之歷史에 先陳南人之關係焉이라⁴⁷⁾

고 하여 南人과 결부시켜 天主教의 역사를 서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南인들이 天主教 박해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 때 李能和는 南人黨爭의 특이성을 강조하였다.

李朝朋黨은 世傳其仇호니 古今天下之所無之事라 彼等黨人은 心中念頭에 乘隙伺釁호야 報讐雪恨이오 除此一件호는 更無餘事라 然而四黨之中에 南人一黨은 自相攻擊호야 見其滅門而後乃已호니 此又他黨所無之事로다 究厥所以호면 斷斷無他호고 初因細事之感情호야 遂作永世之冤頭矣로다 正宗辛亥에 敎案이 初起而原告被告는 皆屬南人호고 高宗戊辰에 敎案이 又起而以南攻南은 亦復如是호니 原告者는 其腰雖紫호나 而被告者는 其於盡赤이로다⁴⁸⁾

라고 하여 正祖代나 高宗代에 박해를 입히고, 당한 사람들이 모두 南人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그는 高宗代까지의 박해를 일관되어 南人과 연결시켜 살피고 있는 셈이다.

끝으로 『朝鮮基督教及外交史』의 세째 부분은 바로 이 冊의 結論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李能和는 여기에서도 天主教의 박해원인을 밝힌 서술

46) 言例

47) 上編, 第7章, 「李朝朋黨與天主教之關係」

48) 下編, 第12章, 「丙寅以來連年敎案」

방법과 마찬가지로, 基督教이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을 우선 外交關係를 中心으로 살피고 있다. 그래서 이에 「附朝鮮外交史」라는 제목하에 外交史를 마련한 것이다. 朝鮮領海에 漂泊洋船한 것부터 시작하여 各國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信仰의 자유획득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外交關係를 傳教獲得과 관련시켜서 파악한 데에 李能和의 外交史의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⁴⁹⁾ 이와 같이 外交史를 언급한 다음에 立約後的 基督教 상태를 다루고 있다. 信仰의 자유를 획득한 후에 갑자기 基督教信者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한편으로 이들의 활동과 함께 朝鮮社會의 風俗 등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朝鮮基督教及外交史』의 내용을 볼 때 冊의 제목이 『朝鮮基督教及外交史』로 되어 있지만, 그냥 하나의 독립된 체재하에서 쓰여진 基督教史 특히 天主敎會史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冊은 李能和의 말에서나 洪熹의 叙에 나타나고 있듯이, 이제 『朝鮮基督教史』로 불러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⁵⁰⁾

V. 史學史的 意義

그러면 李能和의 『朝鮮基督教及外交史』가 가지고 있는 史學史的 의의는 무엇일까. 이 冊이 우리나라 基督教研究史에 있어서 先驅的인 文獻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드러난 사실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지적해 보

49) 洪以燮씨도 「李能和先生의 『朝鮮基督教及外交史』複印序」, p.2에서 「朝鮮外交史」가 韓歐交涉의 一端으로 基督教의 傳來에 重要하고 있다고 하였다.

50) 흔히 제목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즉 이 冊에서 다루고 있는 基督教史와 外交史와의 관계를 자세히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李能和가 黨爭, 世道政治를 서술한 목적과 같은 方法으로 外交史를 마련했다면, 이 冊의 제목에다가 外交史라고 덧붙인 것은 혹시 그 당시 정립된 外交史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한다.

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 『朝鮮基督教及外交史』는 우리나라 사람이 쓴 最初의 基督教史라는 데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李能和의 著述 이전에 달레(Dallet)의 『韓國天主教會史』 등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쓴 것은 이 冊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더우기 聖職者이거나 信者가 아닌 사람이 이러한 基督教史를 저술하였다는 사실도 주목되는 것이다. 한편 이 冊은 달레 등의 기존의 基督教史와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데에 보다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달레 등 聖職者의 저술이 종교적이며, 순교적 사실에 치우쳐 그것을 강조한 나머지 한국교회의 전면을 歷史的으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한다면,⁵²⁾ 이와는 달리 李能和의 『朝鮮基督教及外交史』는 韓國의 歷史 특히 그 당시의 政治現實이나 社會의 諸問題와 연결시켜서 연구한 최초의 저서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天主教 迫害의 원인을 黨爭이나 世道政治 등과 결부시켜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基督教史를 韓國의 歷史와 연결시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李能和의 이러한 관점은 바로 1930年代 日本人에 의하여 행해졌던 韓國天主教會史研究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小田省吾, 山口正之, 赤木仁兵衛, 石井壽夫 등의 연구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書籍을 통한 天主教의 수용과정이라든지, 儒敎와 天主教의 思想的 對立, 특히 黨爭과 관련하여 이해한 天主教 迫害 등에서 李能和의 관점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쉽게 찾을 수 있다.⁵³⁾ 그런데 1930年代 행

51) 다만 『邪學懲義』 등 天主教 迫害者에 의해 수집된 迫害資料가 關衡論書로 편찬된 것이 있었을 뿐이다.

52) 李元淳, 「韓國天主教會史研究小史」, 『崔寅祐紀念教會史論叢』, 1982, pp. 660 ~ 661 및 p. 664.

53) 1930年代부터 시작된 日本人學者들의 韓國天主教會史 연구논문들이 다룬 문제는 대체로 書籍을 통한 天主教受容過程, 儒敎와 天主教의 思想的 對立, 그리고 黨爭과 天主教 迫害와의 관계 등이었다(李元淳, 앞의 논문, pp. 669 ~ 679).

해진 이러한 日本人學者들의 연구는 李能和의 그것보다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⁵⁴⁾ 그러나 당시 日本人學者들이 李能和가 자신들에게 미친 영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오히려 李能和의 연구가 갖는 研究史的 의의는 日本人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조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⁵⁵⁾ 설혹 이 분야에 있어서 이후 日本人學者들이 우리나라 學者들보다 더 많이 연구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李能和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先驅的, 開拓的인 업적은 보다 중요하겠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이외에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의의는 李能和가 『朝鮮基督教及外交史』의 저술을 통하여 朝鮮 兩班社會를 비판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李能和는 그의 緒言에서도 밝혔듯이 朝鮮이 멸망한 원인 특히 그 당시 朝鮮이 왜 그와 같이 落後되어 있고, 開化되지 못하였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의 주된 근거는 儒敎에 대한 것으로,

54) 李元淳씨에 의하면 李能和의 『朝鮮基督教及外交史』는 최초의 기독교 관계 史書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研究史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史學的 次元에서의 한국천주교회사의 근대적 연구는 유감이나마 日帝時代 日本人學者들에 의하여 先導되었으며, 그것은 西歐聖職者들의 종교적 의욕에서의 교회사연구보다는 뒤늦어 1930年代에 들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이러한 日本人學者들의 학문 활동으로 韓國天主敎會史研究는 역사학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앞의 논문, p. 665 및 p. 685).

55) 이것은 李能和와 初期 日本人學者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李能和의 冊이 出刊된 지 2년이 지난 1930년에 日本人學者로는 처음 小田省吾씨에 의하여 「李朝の朋黨を略叙して天主教迫害に及ぶ」(『靑丘學叢』1號)가 발표되었다. 氏는 이 논문의 緒言에서 「그런데 1929년 10월에 이르러 畏友 李能和씨의 高著 『朝鮮基督教及外交史』가 發行되어 이에서 敎示되는 바 多大했다. 특히 李朝實錄 등에서多數의 자료를 수집한 것에는 同氏의 공로가 크다. 同氏의 著書에서 該文書에 관해 기술된 바 있으나 本人은 특히 該文書에 비중을 두고 이를 取扱해 보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李能和의 研究의 영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후 小田省吾씨의 門下인 山口正之 등에 의하여 계속 연구가 추진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日帝時代 日本人學者들이 韓國天主敎會史에 발을 딛게 되는 데에는 역시 『朝鮮基督教及外交史』를 저술한 李能和의 先驅的인 指導性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洪以燮, 「韓國基督教研究小史」, 『白樂濤紀念論叢』, 1955; 『韓國史의 方法』, p. 425 및 「李能和先生の『朝鮮基督教及外交史』」, p. 447).

李能和王의 儒敎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통해서였다. 儒敎란 다름아닌 朝鮮 兩班社會를 유지해 온 思想的 基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儒敎는 朝鮮 兩班社會의 多方面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李能和王은 우선

儒學之固滯 只緣於拜朱思想 政權相爭 乃有朋黨之傾軋⁵⁶⁾

라고 하여 黨爭이 일어나게 된 것도 바로 儒敎의 固滯로 말미암은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朝鮮의 兩班儒學者들이 朱子學을 맹신함으로써

得見天主教書하고 遂爾信入호니 蓋稍有才思之人은 必好奇호서 天主實義·七克·及其他科學諸書는 當時新出西洋之學. 而言論新奇호고 道理簡明호야 好奇之人이 易以漸染이니 亦人情之當然也」라 但李朝以來로 狹義의 儒敎」主持世道호며 指導人心호야 而束縛頭腦호야 桎梏思想호야⁵⁷⁾

라고 하여 西洋의 宗教나 文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人情의 當然함인데도 불구하고, 儒敎는 그것을 거슬러 思想的 自由 또한 속박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兩班儒學者들은 西洋人을 야만인으로 보면서

朝鮮學者與支那學者는 其先天的頭腦」以理學으로 凡治經學曰理學이니 統以爲萬能호나니 今有一儒者호야 批評他學術호면 其判決之書에는 必歸着於儒로다 蓋儒家者流는 以爲倫理道德은 是孔學專有之物호고 而視西洋人을 若夷狄野蠻無父無君者然호야 爲斥洋斥邪之一大理田也⁵⁸⁾

고 하여 斥洋斥邪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斥洋斥邪도 결국 儒敎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兩班社會가 儒敎만을 주장하며 다른 것을 배척하는 가운데 朝鮮의 文化는

彼朱夫子之教人也에 勿觀雜書호라호니 此等狹義」灌入於我儒腦髓之中호야 凡

56) 緒言

57) 上編, 第 15 章, 「權日身敎主事件」

58) 上編, 第 3 章, 「朝鮮學者對西洋學術之思想」

於讀書에 以朱爲準. 而不取新奇之說야 李朝以來에 文化退墮야 無一可觀 職是之由라⁵⁹⁾

고 하여 그만 退墮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상황은 朝鮮民族으로 하여금

其結果乃使朝鮮民族 於世界則爲落伍者 於時代則爲遲後者 蓋咎有所歸 曰頑固儒⁶⁰⁾

라고 하여 世界에서 落伍하게 되었고, 또한 時代에도 뒤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儒敎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儒敎가 완고한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朝鮮이 西洋의 文物을 받아들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李能和는 儒敎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正宗大王이 欲禁西洋之書야 并與明清文集雜官雜記而禁其購來야 此則束縛頭腦, 桎梏思想之一例也 | 로다 在此世紀야 我朝鮮人이 開化最遲後야고 文學未發達은 未始非正宗朝禁購新書야 人民食其惡果所致也로다 吁라 頑固哉라 儒術也여 消極哉라 儒敎也⁶¹⁾

라고 하여 완고한 儒術과 소극적인 儒敎에 朝鮮이 開化되지 못한 모든 책임을 돌리고, 백성들은 오로지 그 피해만을 입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한편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李能和는 당시 基督教의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逮夫韓佛立約修好야는 傳敎一事도 亦屬自由야(各國約章皆有某國本敎典, 若以禮各條均應隨意自行等句語) 若以前後比例言之. 則網羅盡朝鮮人야 爲天主教信徒라도 殆亦不難致之. 而事實則不然야 立約明許之後에 觀乎西敎之傳布야면 反在停頓狀態야 是豈非團束法禁則信之者衆. 而放任自由則信之者寡之明證實例乎야⁶²⁾

59) 上編, 第 35 章, 「純祖辛酉討邪教文」

60) 緒言

61) 上編, 第 16 章, 「禁購書·焚敎書」

62) 下編, 第 29 章, 「立約後基督教傳布狀態」

라고 하여 韓佛立約後 信仰의 자유를 획득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李能平和의 이러한 지적은 西洋의 文物을 수용하기를 거절한 儒敎로 말미암아 朝鮮의 文明만 그 결과 뒤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李能平和는 『朝鮮基督教及外交史』에 언급된 儒敎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통하여 당시 朝鮮社會를 것처럼 낙후하게 만든 兩班社會를 밝혀보고자 하였던 것이다.⁶³⁾ 또한 한 社會의 發展에 있어서 思想의 自由나 對外關係에 있어서의 開放性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사실은 儒敎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통하여 朝鮮 兩班社會를 비판한 李能平和가 한편으로 基督教가 韓國에 수용됨으로써 나타난 긍정적인 측면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李能平和가 『朝鮮基督教及外交史』의 저술을 통하여 歷史의 담당자를 兩班社會에서 억압받고 소외되던 피지배층에까지 확대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李能平和는 歷史에 있어서 피지배세력의 보다 많은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역시 儒敎에 대한 비판으로서 李能平和는

然則李朝之以儒爲宗者는 以極少數之兩班言之오 凡所宣傳之歷史上諸記錄은 即此少數之兩班之事也오 非有關係於一般人民者也로다 然則所謂儒敎者는 即少數兩班之宗教也오 非一般人民之宗教也니라⁶⁴⁾

고 하여 儒敎란 一般百姓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極少數 兩班의 宗教요, 專有物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歷史의 기록도 마찬가지여서, 거기에는

63) 이러한 점에서 李能平和의 思想形成 과정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開港後 開化派 人士들은 儒敎를 공격했는데, 특히 朝鮮이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맹렬히 비난했기 때문이다(李光麟, 「舊韓末 新學과 舊學과의 論爭」, 『東方學志』 23, 24 合輯, 1980, pp. 2~8). 그러므로 李能平和의 思想은 開化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러한 데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한다.

64) 上編, 第6章, 「朝鮮宗教之由來並關衛旨趣之所在」

兩班의 일만이 선전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다. 한편 兩班은 이러한 儒敎를 바탕으로 하여

至于麗末 始倡儒敎 李朝承之 五百年間 禮樂文物 燦然可觀 而名分階級之裁嚴 兩班專利 節文禮義之繁縟 百姓受困 奴性之馴養⁶⁵⁾

라고 하였듯이 百姓을 수고롭게 하고, 노예처럼 길들였는데 名分과 階級의 구별이 매우 엄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儒敎와 달리 基督教이 수용되면서부터 狀況은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基督教은 極少數의 兩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一般百姓과도 관계되는 모든 사람의 宗教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李能和는

投入西敎하면 階級差別이 由是破除하고⁶⁶⁾

라고 하여 基督教을 믿게 되면서 階級의 差別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李能和는 이러한 차별의 범주에 身分과 地域間의 차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西敎之始入國也 書籍이 爲之媒介라 故로 必以京城爲傳敎中心根據之地키니 卽如珍山土人尹持忠이 從京城之明禮洞居金範佑家키야 得天主教書而信入키고 又爲播及於權尙然키고 楊根土人權哲身도 亦從京中譯官金某키야 借書誦習키고 又有京居鄭義燦等十一人信西敎者키고 又洪樂安長書之中에 京師之內에 播神章甫, 染邪教者十居八九云云等이 是也라 其次則海西關東에 村氓野姿와 湖中之地에 臨漢農夫多信西敎키고 嶺南一鄉은 古稱鄒魯之鄉키야 儒敎深키고 守舊最甚故로 最後에 始有信西敎者키고 西北兩道는 全無信者키니 蓋此兩道는 王化較遠故로 外教之入도 亦在最後也 以上皆言純祖以前事也 今則西敎無處無之而平壤宣川等地로 號稱朝鮮基督教(新敎)之大本山키니 此亦有故焉⁶⁷⁾

라고 하여 李能和는 基督教이 地域的으로, 身分의 차별 없이 확산되고 있음을 살피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京城에서 시작되어 점차 地方으로 확대

65) 緒言

66) 上編, 第36章, 「西敎分布地方的狀況」

67) 同上

되어 갔는데, 이 冊의 저술 당시에는 王化가 미치지 않았던 곳까지에도 확산되어 갔다는 것이다. 한편 信者의 身分에서도 京城의 兩班, 譯官 등에서뿐만 아니라 地方의 村氓野姦와 醴漢農夫까지도 믿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언급한 대로 朝鮮文의 보급과 함께 高宗代에는 婦孺 등도 信者가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基督教의 수용과 함께 계급이 없어져서 平等하게 되었지만 또한,

明宣^{明宗}宣^{宣祖}以來 燕購書籍 西教思想 逐漸浸染 至正宗時 儒士階級 頗有信者 所行節目 一反儒教 毀神主而廢祭祀 破階級而爲平等 移易風俗 改造社會⁶⁸⁾

라고 하여 風俗과 社會도 改造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李能平和는 당시 基督教信者들의 중요성과 활약에 대하여

至今觀之 西教諸派信徒之數는 不下數十萬. 而與我社會로 大有直接關係. 間接影響者호니 即在移易風俗習貫호고 改造民族之精神이라 其諸要點은 具如下文호니 觀察社會之變遷者 不可不注意焉⁶⁹⁾

라고 하여 기독교신자는 적어도 수십만이 되는데, 이들은 朝鮮社會와 직접적으로 크게 관계가 있고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들 기독교신자는 風俗, 習慣의 변화 뿐만 아니라 심지어 民族의 精神까지도 개조시키고 있다고 하며, 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李能平和는 基督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身分이나 地域의 차별이 해소되어 平等하게 됨으로써, 피지배세력이 歷史의 담당자로서 보다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朝鮮基督教及外交史』를 통하여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⁷⁰⁾

68) 緒言

69) 下編, 第29章, 「立約後基督教傳布狀態」

70) 이러한 점에서 李能平和가 『朝鮮解語花史』(1927) 등 社會史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잘 드러나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李基白씨에 의하면 李能平和의 몇 개의 社會史的인 저술들은 아마 19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韓國史學的

지금까지 세 가지 측면에서 李能和의 『朝鮮基督教及外交史』가 가지는 史學史的 的의를 알아보았다. 이 冊은 우리나라 天主教會史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인 시각을 제시한 최초의 저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李能和는 이 冊에서 儒敎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당시 朝鮮社會의 낙후된 원인을 밝혀보려고 하였으며, 基督教의 수용으로 인하여 兩班社會에서 소외되었던 피지배세력이 歷史의 무대에 보다 많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Ⅵ. 맺 음 말

지금까지 『朝鮮基督教及外交史』를 中心으로 李能和의 史學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것과는 달리 조금은 더 가깝게 李能和의 史學史的 위치에 접근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啓蒙時代史學者로서 李能和가 가진 한계가 물론 있었겠지만, 그 나름대로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정한 역할을 최대한으로 이룩하려고 노력했던 歷史家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李能和는 前時代로부터의 전통을 충실히 이어 받아서 韓國近代史學으로 넘기는, 즉 前近代와 近代 사이에서 교량의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시기의 우리나라 學者들의 연구가 가지는 史學史的 的의와 위치는 제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⁷¹⁾ 이상에서 살핀 바를 간단히 정리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李能和가 『朝鮮基督教及外交史』를 저술한 동기는 宗教的 측면과 歷史的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宗教的 측면에서 李能和는 그의 父인 李源兢과의 신앙상의 갈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 李能和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기존의 基督教史와는

傳統을 계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9世紀 韓國史學의 新 樣相』, 『韓渚叻紀念論叢』, 1981, p. 487).

71) 李基白, 「韓國史研究에서의 分類史問題」, p. 86.

달리 韓國의 歷史와 결부된 새로운 기독교사를 써 보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는 특히 당시 朝鮮社會의 낙후된 원인을 西洋의 기독교와 연결시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李能和는 『朝鮮基督教及外交史』를 저술함에 있어서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冊의 서술태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흔히 李能和는 단순히 史料의 수집·나열에만 머문 歷史家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러한 歷史家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實證이었기 때문이다. 즉 基督教史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주장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事實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李能和는 되도록 많은 자료를 모으려고 했으며, 또한 그것을 그의 저술에 이용함에 있어서도 엄격히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하여 쓰여진 『朝鮮基督教及外交史』의 내용은 대략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天主教의 수용과정을 다룬 부분, 天主教의 전파과정 및 天主教 迫害의 전말을 다룬 부분, 그리고 基督教이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과 당시의 기독교 상황을 다룬 부분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冊은 李能和 자신이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의 독립된 체재하에 쓰여진 基督教史이며, 또한 그렇게 불리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제목에 붙여진 外交史란 黨爭이나 世道政治를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基督教과 관련하여 특히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朝鮮基督教及外交史』가 가지고 있는 史學史的 의의는 대체로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우리나라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최초의 基督教史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韓國의 歷史 특히 당시의 政治現實과 관련시켜 그것을 살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래서 李能和는 天主教 迫害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黨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基督教史에 대한 李能和의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은 그대로 1930년대 日本人學者들의 연구에 계승되어 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李能和의 연구가 가지는 史學史的 의의는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李能和는 『朝鮮基督教及外交史』를 통하여 朝鮮 兩班社會를 비판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儒敎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통해서였는데, 당시 朝鮮社會가 그와 같이 開化되지 못하고 낙후된 것은 儒敎의 완고함과 소극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斥洋斥邪하였고, 朝鮮의 社會만 世界에서 뒤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李能和는 基督教이 우리나라에 수용됨으로써 나타난 긍정적인 측면에도 또한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基督教을 믿게 되면서 身分이나 地域의 차별이 없어져 平等하게 되었고, 한편으로 그와 같이 兩班社會에서 억눌리고 소외당하던 피지배층이 이제 歷史의 무대에 등장하여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英文要約〉

The Writings of Lee Neung-wha, Especially in Reference to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Kim, Soo-tae

This article will give a brief insight into Lee Neung-wha(李能和: 1868~1945)'s study of Korean history. He was a renowned historian during the time of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He is especially known for his writings on the history of the various religions in Korea. This study is seen through one of his books, *The History of Christianity and Foreign Policy in Korea*(朝鮮基督教及外交史; 1928).

His motivation for writing this book appears to come from the conflict between his father, Lee Won-geung(李源鏡: 1849~1919), who was a christian and Lee Neung-wha himself who was a Buddhist. Moreover this study represents unique approach, since it deals with the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as viewed through the political conditions of Chosŭn dynasty. This work can also be compared to the French priest Charles Dallet's popular book,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1874).

In spite of his original approach, Lee Neung-wha is frequently seen as a historian who simply collected and categorized historical facts. But this evaluation is quite superficial. As Lee Neung-wha clearly explained in his book, his intention in writing was not just to amass historical facts, but also to substantiate and prove his understanding of Christian history through objective facts.

The content of this book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the efforts to accept Catholicism in Korea; second, the events during the persecution of Catholics and the spread of Catholicism throughout the country; third, the situation after Christianity gained religious freedom in Korea.

This book also reveals some important historical points. First, this book is the first documentation written by a Korean which gives some basic viewpoints on how to understand the Korean Catholic history. Second, he criticized Confucianism as being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lack of development in Chosŭn dynasty. Third, he emphasized that since many common people accepted the Christianity the society of the Chosŭn period became free from social status and regionalism.